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윤리와 사상]

1	⑤	2	③	3	③	4	①	5	⑤
6	⑤	7	④	8	①	9	②	10	③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③
16	④	17	②	18	①	19	②	20	①

1. [출제의도] 맹자의 이상적 인간관 파악하기

그림의 스승은 맹자이다. 맹자는 이상적 인간을 대장부 또는 대인이라고 하였으며,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집의(集義)를 통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것을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스토아학파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아우렐리우스이다. 스토아학파는 외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을 통해 자연의 필연적 질서를 이해하고 순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출제의도] 베이컨과 데카르트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베이컨, 을은 데카르트이다. 베이컨은 우상론을 통해 다양한 편견과 선입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귀납적 방법을 통한 지식의 획득을 강조하였다. 데카르트는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하여 방법적 회의를 통해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으며, 연역적 방법을 통한 지식의 획득을 강조하였다.

4.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비교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자아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공동체가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며,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의 삶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5. [출제의도] 소피스트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 파악하기

제시문의 ‘나’는 플라톤, ‘어떤 사상가’는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라는 주장을 통해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로서의 정의관이 아닌 지극히 세속적인 정의관을 주장하였다. 반면 플라톤은 이성을 참된 인식의 기반으로 보았으며, 정의의 참된 근원을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6.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가 품성적 덕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지성적 덕이라고 보았다. 또한 행복을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으로 보았으며, 의지의 나약함이 악덕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그는 파렐치함과 시기와 같은 감정과 절도나 살인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므로 중용의 상태를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7. [출제의도] 이이와 이황의 사상 비교하기

(가) 제시문은 이이의 글이며, (나) 그림은 『성학십도』에 나타난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이가 발한 사단과 기가 발한 칠정을 별개로 보았다. 이에 반해 이이는 기발만을 인정하여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며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8. [출제의도] 벤담과 키르케고르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키르케고르이다. 벤담은 쾌락을 선으로 고통을 악으로 보는 쾌락주의를 주장하였다. 반면 키르케고르는 쾌락을 추구하는 심미적 단계나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윤리적 단계에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리는 종교적 단계에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9. [출제의도] 벤담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공리주의 사상이 벤담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보았다. 그러므로 A에게 마을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장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은 장자의 주장이다. 장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이나 인간 중심적인 기준, 시비선악의 분별에서 벗어나 자연에 따르는 자유로운 삶을 강조하였다.

11. [출제의도] 정제두와 정약용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정제두, 을은 정약용이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과 마음은 다르지 않으며 마음이 곧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정약용은 성기호설의 입장에서 인간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타고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정제두와 정약용은 모두 인간의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였으며, 노력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2. [출제의도] 노직과 왓치의 정의론 비교하기

갑은 노직, 을은 왓치이다. 자유지상주의자인 노직은 분배 정의가 취득·양도·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최소 국가에서만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동체주의자인 왓치는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들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한다. 또한 분배 정의를 위해 공동체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13. [출제의도] 원효, 의천, 지눌의 사상 이해하기

원효는 일심(一心)에 근거해서 화쟁(和諍) 사상을 주장하였다.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경전 공부와 참선을 함께 수행하는 교관겸수(敎觀兼修)를 통해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으며, 돈오점수(頓悟漸修)와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였다.

14. [출제의도] 칸트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칸트이다. (나) 퍼즐의 가로 낱말 (A)는 자연, (B)는 계율이므로 세로 낱말 (A)는 ‘자율’이다. 칸트에게 있어 자율이란 자신 안에 있는 실천 이성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15. [출제의도] 노자와 순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노자, 을은 순자이다. 노자는 인위를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무지와 무욕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예의와 법도를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동학, 원불교, 증산교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최제우, 을은 박중빈, 병은 강일순이다. 동학은 우리 고유 사상에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했으며, 원불교는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증산교는 전통적인 고유 사상에 무속과 도가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사상의 기초를 닦았다. 한편 동학, 원불교, 증산교는 모두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 사회를 지향했으며 후천개벽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17. [출제의도] 마르크스의 사상 이해하기

마르크스는 인류 역사를 계급 투쟁의 역사로 보았으며, 프롤레타리아의 폭력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생산 수단이 공유되는 평등한 공산 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혜능의 사상 이해하기

그림 (가)의 갑은 중국 불교 사상이 혜능이다. 혜능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이심전심(以心傳心)을 강조하는 선종의 입장에서 본성을 직관하면 단박에 깨달음[頓悟]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케인스와 하이에크 사상 비교하기

갑은 수정 자본주의자 케인스, 을은 신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이다. 케인스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국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였다. 한편 케인스와 하이에크는 모두 자본주의 사상으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20. [출제의도] 주자와 왕양명의 사상 이해하기

갑은 주자, 을은 왕양명이다. 주자는 격물(格物)을 외부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지(知)와 행(行)의 선후(先後)를 따지면 지가 행보다 앞선다는 선지후행을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왕양명은 격물을 내 마음의 본체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마음 밖에 어떠한 이치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주자와 왕양명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存天理去人欲]해야 함을 강조하였다.